

진도에 한국 첫 시화박물관...시서화 체험·교육 메카된다

해남 출신 이지엽 시인 임희면 석교초등죽림분교에 설립 시·그림 등 1000여점 전시...박종회관·정병례관 조성도 12일부터 '진도의 역사와 예술, 문학과 만나다' 특강

예로부터 진도는 '보배의 섬'이라 불렸다. 농토가 넓어 농산물이 풍부한 데다 바다에서는 어류와 해조류가 많이 낚였다. '1년 농사로 3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전해온 것은 그러한 지리적 요인과 무관치 않다.

문화와 역사 유적도 어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 곳곳에 자리한다. 삼별초의 항몽유적지인 남도석성을 비롯해 명랑대첩의 전승지 명랑대첩은 이순신의 충혼이 서려 있다. 특히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기거하던 곳을 손자 남농 허건이 복원한 윤림산방은 사시사철 예술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문화와 예술의 고장 진도에 시·서·화(詩·書·畫)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그린 한국시화박물관' (시화박물관)이 조만간 개관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초 박물관으로 전시와 체험, 힐링 등 체계화된 예술교육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박물관을 기획한 이는 해남 출신 이지엽 시인(경기대 교수). 오랫동안 중앙 시조문단에서 탄탄한 작품성과 독창성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구었던 시인이 시화박물관을 계획했던 것은 지난 2007년부터. 개관 준비로 바쁜 시인은 최근 전화로 근황을 알려왔다.

"지난 2007년 현대시 100년 '시가 다시 희망이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인과 미술가 각 1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화박물관에 관한 말이 오간 것이 모티브가 됐지요."

그는 다행히 대학 안식년을 맞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개관 준비로 바쁘지만 그

다지 피곤하지 않는다.

시화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지난 10년 전 폐교한 석교초등죽림분교(임희면 죽림길 97). 이 시인은 박물관 등 문화예술을 위한 설비를 전제로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해왔다. 학교부지 1000평, 임야 3000평 등 모두 4500평에 이르는 조만간 개관 후 전남도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곳은 그동안 서울에서 대규모 전시를 십 수 년 진행해오며 축적한 결과물을 토대로 만든 박물관"이라며 "국내 주요 문인 글씨는 물론 이와 관련된 그림을 집중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화박물관에는 시인의 시와 미술가의 그림 약 100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 문인화 거목 창현 박종회의 작품을 모은 창현 박종회관, '새김아트'를 개척한 고암 정병례 작품을 주제로 한 고암 정병례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남이 고향이지만 진도에 시화박물관을 추진한 이유는 '시서화장부' 모두 절정인 진도가 적임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당초 광주여대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경기도로 자리를 옮겼다. 후학들을 양성하는 틈틈이 '씨앗의 힘', '떠도는 삼각형' 등의 작품집을 펴냈으며 중앙시조대상, 고산문학대상 시조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적인 정서와 토속적인 언어의 조화,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작품세계라는 문단의 평을 받고 있다.

경기대로 옮겨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늘 남도문화를 어떻게 콘텐츠화할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 정년이 2년 남짓 남았지만 수



5월 중 개관 예정인 '시그린 한국시화박물관' (한국시화박물관)은 시·서·화(詩·書·畫)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후 전시와 체험, 힐링 등 예술교육이 진행된다. 이곳에는 시인의 시와 미술가의 그림 약 1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진도 석교초등 죽림분교 자리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 시화박물관 전경.

원과 진도를 오가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남도 문화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그는 "박물관을 구상하고 오픈하는 일련의 과정

이 적잖이 힘들었지만 지역민과 진도군 협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개관을 하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화박물관 오픈을 앞두고 '진도의 역사와 예술, 문학과 만나다'를 주제로 12일부터 8월 18일 까지 모두 15차례 특강을 마련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진도 외 지역에서는 줌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12일 이선옥 의재박물관 관장의 '소치와 조선 남종화의 계승'을 시작으로, 2회차는 이근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의 '해와 달이 부르는 벼루의 용비어천가'가 펼쳐진다.

이밖에 '진도 씨김국을 통한 해원 상상' (이운선 교수), '민족의 항쟁 삼별초' (오치훈 교수), '문화유산으로 읽는 고려시대' (김희태 연구위원), '세계인이 불리는 한국의 운율' (이지엽 교수), '남도 풍류의 미학' (최한선 교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100명,수강료는 무료. 문의 061-542-10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심사위원〉
- 신수경 (전남대 교수)
- 황미경 (순천대 교수)
- 김정아 (광주대 교수)
-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 박정국 (창신대 교수)
- 90 장유립 (목포부주초4)
- 117 순하운 (서광초3)
- 118 김재은 (송정중앙초3)
- 137 김에스터 (목포국제기독학교3)
- ▲은상
- 10 박인설 (광주효덕초4)
- 14 김아인 (운남초3)
- 16 박승민 (만호초4)
- 19 성현승 (광주상무초3)
- 21 김세음 (살레시오초4)
- 24 김라희 (문정초4)
- 25 김승현 (불로초3)
- 26 박다홍 (살레시오초3)
- 49 정주아 (불로초4)
- 67 박수아 (불로초4)
- 64 황서연 (불로초4)
- 67 유현준 (운전초3)
- 69 이명흔 (빛누리초4)
- ◇초등부 3, 4학년
- ▲최고상
- 88 이여준 (목포항도초4)
- ▲금상
- 17 이지인 (화개초3)
- 18 유리아 (광주효덕초4)
- 31 안하은 (일동초3)
- 32 최윤정 (목포영산초4)
- 39 최하진 (운전초3)
- 62 이시은 (라온초4)
- 73 김서연 (빛누리초4)
- 82 김연진 (화순초4)

- ### 제66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 ▲동상
 - 2 유은성 (태봉초4)
 - 4 김효운 (무등초3)
 - 8 김형정 (화개초4)
 - 15 이혜림 (치평초3)
 - 20 임하울 (불로초3)
 - 23 문소희 (운전초3)
 - 27 한주희 (운전초3)
 - 29 박진서 (불로초3)
 - 30 이예성 (광주안암초4)
 - 33 노가은 (새별초3)
 - 34 김리예 (대자초4)
 - 36 강은결 (불로초3)
 - 37 김유나 (일신초4)
 - 38 류지민 (불로초3)
 - 44 지예인 (불로초4)
 - 47 성현서 (광주상무초4)
 - 50 위슬아 (문정초3)
 - 52 서지원 (광주학운초3)
 - 55 정의찬 (운전초3)
 - 58 김서윤 (마재초4)
 - 59 문채원 (치평초3)
 - 60 박하은 (송정중앙초3)
 - 61 임지윤 (살레시오초3)
 - 63 김효린 (운전초3)
 - 65 조운선 (라온초4)
 - 66 강예은 (수완초4)
 - 68 정해윤 (라온초4)
 - 71 김윤하 (광림초4)
 - 72 김경은 (조봉초4)
 - 77 정호준 (산정초4)
 - 80 변가영 (만호초4)
 - 86 강소현 (문우초4)
 - 101 정하연 (문정초4)
 - 102 임유민 (은빛초3)
 - 106 오상교 (송정초4)
 - 107 이나운 (용두초3)
 - 110 엄운재 (운리초3)
 - 111 이서영 (진제초4)
 - 115 김솔 (하백초3)
 - 119 황서희 (광주효덕초4)
 - 121 송호빈 (진제초4)
 - 123 김서현 (하백초3)
 - 125 주서현 (신창초3)
 - 126 박시윤 (하백초3)
 - 128 정하빛 (신창초4)
 - 135 박채영 (순천대석초4)
 - 140 이재현 (운리초4)
 - ◇고등부 1, 2학년
 - ▲금상

- 17 장서운 (전남예술고2)
- 20 고려경 (광주예술고2)
- 31 김민서 (군산여자고2)
- 32 김민준 (전남예술고1)
- ▲은상
- 1 장호 (2005년생)
- 4 고세이 (군산영광여자고2)
- 8 김지우 (2004년생)
- 18 이민교 (광주예술고1)
- 24 김윤경 (광주예술고2)
- 29 김현진 (전남예술고1)
- 30 김하솔 (광주예술고2)
- ▲동상
- 3 홍서현 (광주경신여자고2)
- 6 류수민 (살레시오여자고1)
- 12 최유민 (광주경신여자고1)
- 14 서다연 (광주예술고2)
- 22 임성경 (전남예술고2)
- ◇고등부 3학년
- ▲최고상
- 4 박하원 (2003년생)
- ▲금상
- 3 이도경 (전남예술고3)
- 5 유지수 (전남예술고3)
- 7 이세빈 (충남예술고3)
- 20 정준화 (광주예술고3)
- ▲은상
- 17 김다인 (광주예술고3)
- 19 류은빈 (전남예술고3)
- ▲동상
- 1 박주영 (전남예술고3)
- 8 전희민 (전남예술고3)
- 22 문예서 (광주예술고3)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